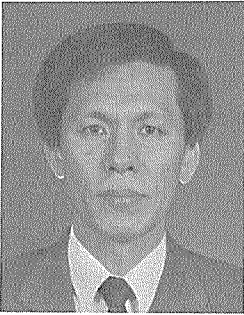


# 무역업무 자동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 '95 KTNET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



윤 재 호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업개발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제적인 정보화시대의 조류에 동참하기 위한 전제로서 EDI를 통한 무역업무 자동화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 관련부처 및 무역유관기관 또한 무역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EDI의 도입·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1. 서론

'93년을 우리나라 무역자동화의 기틀을 마련한 해로 본다면 '94년은 무역자동화가 실용화되고 정착의 뿌리를 내린 한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1월에는 금융망의 개통으로 국내 33개 전 외국환은행의 수출입승인, L/C내도 통지 및 개설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2월에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통관망의 개통으로 수출통관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개시되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EDI의 실용화를 이룩한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EDI의 실용화는 종이서류를 감소시키고 각종 정보를 자동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업무처리 지연 및 착오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눈에 띄는 효과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업무처리를 위한 조직·인력의 재배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Reengineering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제 EDI는 국내외적으로 역행

할 수 없는 커다란 바퀴로 굴러가고 있다. 문제는 하느냐 안하느냐의 선택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시작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안정화시키는가의 문제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제적인 정보화시대의 조류에 동참하기 위한 전제로서 EDI를 통한 무역업무자동화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 관련부처 및 무역유관기관 또한 무역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EDI의 도입·확산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KTNET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올해의 추진계획을 설명함으로써 무역업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 2. 무역업무자동화 추진현황

KTNET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무역, 외환, 금융, 통관, 보험, 물류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무역부문의 현황을 보면

수출추천기관의 수출추천 및 승인 업무와 수입자와 국내 무역대리점 간에 사용하는 오피 발행업무를 추진하였다.

수출추천기관의 경우, '93년 10월부터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섬유직물수출조합, 한국생활용품수출조합이 소형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장기준 수출승인 신청 및 승인업무를 EDI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95년부터는 신용장 방식 뿐만 아니라 송금환, 계약서방식 등 모든 결제방법에 의한 수출추천, 수출승인 신청 및 승인 업무를 가능케하고, 정부간 협정에 의한 섬유비자발급 신청 및 비자발급 통지업무 등의 연계업무도 EDI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역협회의 대형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한 쿼터EDI시스템을 개발해 왔으며 상반기에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들 3개 추천기관이외의 기관으로 대한타이어공업협회 및 한국강관협회가 소형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출승인 신청 및 수출승인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오피 발행업무의 경우 무역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및 무역업자 및 무역대리업자용 S/W의 개발을 완료한 상태로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외환·금융부문의 경우, '94년 1월 25일 국내 33개 전 외국환은행이 참가한 금융망의 개통식을 갖고 수출입승인 신청(변경승인신청 포함) 및 승인업무, 외국으로부

터의 L/C 내도 통지, 국내 무역업자의 L/C개설 신청 및 개설통지업무를 개시하여 전국의 모든 무역업체가 은행을 직접 가지 않고도 무역업무를 회사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통관부문의 경우,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무역절차의 핵심부문을 추진해온 관세청이 EDI방식으로 수출신고 및 수출면허 정보조회 업무를 가능케 하는 EDI수출통관 자동화시스템을 '94년 12월 14일 개통하였다.

이는 전국 모든 세관의 수출통관업무를 EDI화 한 것으로 종전 4시간 걸리던 수출통관 절차를 5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무역업체의 실질적인 서비스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관세청의 EDI 수출통관시스템의 개통은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무역망, 금융망, 물류망과 연계 접속이 가능해짐으로써 종합무역업무 자동화로의 일보 전진을 의미한다.

화물의 운송도중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적하보험부문의 경우,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11개 손해보험사와 KTNET이 공동개발에 참여하여 보험청약 및 보험증권발급통지 등의 표준전자문서의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KTNET과 보험개발원간은 X.400방식으로 이미 접속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11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청약 및 보험증권발급통지 등을 위한 자체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소형무역업체용 S/W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대형업체의 경우 자체개발중에 있어 '95년 상반기에는 실업무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출보험의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와 KTNET간에 표준전자문서의 초안이 개발되어 Pilot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물류부문의 경우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이 운영하는 물류종합전산망의 위탁운영체로 KTNET이 지정돼 명실상부한 국내 EDI 중심VAN으로서의 위치를 잡아가고 있으며, 국내 수발주의 경우 완제품 생산자와 부품공급자간의 수발주와 자금결제 및 재고상태 등에 관한 정보의 전달을 EDI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였다.

### 3. 향후 추진계획

KTNET은 '95년을 서비스의 안정화 및 이용 활성화, 서비스상품의 지속적 개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는 다양한 업무들이 EDI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역업체들이 EDI효과를 크게 체험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먼저, 외환·금융부문은 외국환은행업무와 관련하여 지난해부터 준비하여 왔던 내국신용장의 개설 및 통지업무가 금년 2월 13일, 19개 은행이 동시에 개통되어 대우,

현대종합상사 등 많은 무역업체가 이용중에 있으며, 연도중 내국신용장 개설업체뿐 아니라 수혜업체에게까지 그 이용이 확산될 것이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등으로 인하여 그 발생빈도가 많아진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출입동시승인 업무도 연도중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EDI방식으로 무역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자동처리 등 무역관련업무 뿐만 아니라 은행과의 거래 전체를 EDI방식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금융 EDI 서비스의 개발에 착수하여 Firm-Banking업무, 자행 및 타행 계좌이체 업무, 집금결과통지, 계산서, 입출금통지서 등의 업무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L/C 통지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계 국내 은행들의 무역자동화 참여를 유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수출입추천기관은 현재 EDI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5개 추천기관외에도 무역업체의 요청이 많은 추천기관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 무역업체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예정이며, 관세청의 수입통관시스템의 개발에 맞추어 수입과 관련된 요건 확인 기관에 대한 업무도 개발에 착수할 것이다.

오퍼부문은 수입업자와 국내무역대리업자간의 오퍼발생 업무를 확산·적용시킴과 무역대리점협회의 국외 발행오퍼내역 확인 업무도 하반기에는 시스템개발에 착수할 것이다.

통관부문은 수입통관, 보세운송 및 보세화물의 반입, 반출보고 등을 EDI 방식으로 올해부터 관세청과 공동 개발에 착수하여 내년 6월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적하보험부문의 경우 적하보험 청약 및 보험증권 발급통지 업무가 올 상반기중에 서비스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보험증권의 전달방식을 무역업체에서 직접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현지발권 및 수입부문의 증권발급 부문에 대한 제

무역자동화 서비스 현황

부문	업무내역	서비스 시기
은행	수출입 승인, 변경, 유효기간 연장	서비스중
	L/C 개설, 조건변경, 통지	서비스중
	펌뱅킹(Firm Banking) - 단순연계 서비스(신한/한일/기업/상업/서울신탁/외환은행) - EDI형 FB서비스	서비스중 '96. 1
	내국신용장(Local L/C)개설, 통지	서비스중
	입출금 통지서, 계산서	'95. 4
	지급지시서	'96.1
관세청	수출통관(세관절차)	서비스중
	수입통관(세관절차)	'96. 7
	수·출입 보세화물 관리	'96. 7
추천기관	수출 추천 및 승인	서비스중
	쿼터EDI, 비자신청	'95. 3
	ELVIS(대미쿼터정보전송시스템)	서비스중
	검역, 형식승인 등(건설교통부 등 12개 기관)	'96. 7
오퍼	국내발행 오퍼(오퍼상, 수입상)	서비스중
적하보험	적하보험	'96. 3
수출보험	단기수출보험	'95. 10
무역관리 시스템	인증DB시스템	'95. 3
	L/C 기준 한도 관리	'96. 1
수발주	원부자재	'95. 7
	자동차업계	'96. 3
E-Mail/Fax	상용서비스	'95. 7
해상운송	선박요청 및 선하증권 통지	서비스중
보세구역	보세장치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서비스중
통신망	서울, 부산, 김포, 인천, 대구	서비스중
	대전, 광주, 안양, 성남, 창원(마산), 수원, 울산, 안산, 의정부, 청주, 군산, 목포, 포항, 여수, 송탄, 천안, 충주, 이리, 전주, 광양, 구미, 장승포, 진주	'95. 12
	김해, 동해, 완도, 충무, 제주	'96. 12

도개선도 병행될 것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배서업무도 추  
가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것이며,  
수출보험도 선적통지 및 결제통지  
업무를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서비  
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부자재 수발주의 경우 무역업  
체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한  
전단계 업무에 필요한 주문서, 주문  
변경서, 송장 등의 전자문서를 개발  
하고 시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반기  
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자  
동차업계 등 특정산업의 수발주업  
무 EDI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업체가 전자문서로 제  
출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진위여부를 무역유관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L/C,  
E/L, I/L의 인증DB를 상반기중  
구축완료할 것이며, 통상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입승인제도의  
변경에 맞추어 지금까지의 사전관  
리 무역체제를 사후관리체제로 전  
환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후관리 DB를 구축  
할 방침이다.

이외에 KTNET은 국내 EDI  
의 확산보급을 위하여 사용자교육  
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EDI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한층 더  
강화 할 것이다.

#### 4. 무역업무자동화사업 성공 의 전제

이러한 무역업무자동화사업은  
KTNET 한 기관만이 아닌 정부,

무역유관기관 및 우리나라 전체기  
업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가 성  
공적인 열쇠가 될 것이다.

첫째, EDI는 한 기업의 단순한  
업무처리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기  
업내부의 경영혁신을 가져오는 요  
소로서 각 기업의 무역관련 담당자  
만이 추진할 업무가 아니라, 경영  
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총체적  
입장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정 기업의 내부 경영정보시스템  
을 구축하는 방식과는 달리 다른  
기관과의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  
으로 상대방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EDI는 현재의 복잡한 서  
류처리 절차를 간소화, 표준화시키  
는 것으로 표준화 작업에 관련기관  
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  
며 또한, 무역업무자동화의 추진을  
위하여는 절차개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관련법규 및 제도의 개선  
과 절차의 간소화가 선행되어야 하  
는 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속  
성을 도모하고 관련업무의 전반적  
인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 5. 결론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조직개편  
및 인원축소 등의 전통적인 경영  
개선 정도로는 세계화로 상징되는  
국제무대에서의 생존 자체가 의문  
시되어 보다 혁신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즉 살아남기 위해,  
또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  
편으로 다양한 신경영기법을 기업

들은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엔지니어링, 전략적 제휴,  
고객만족경영, 미래창조전략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법들은 정보기술을 이  
용하여 전체업무의 프로세스를 처  
음부터 다시 해보자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서류처리방  
식을 EDI방식으로 바꿔감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세계 속의 경쟁에서 생존  
하기 어려운 현상이 점점 심화되  
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국  
내외의 고객들의 욕구변화 및 기  
술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긴밀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존  
의 복잡한 무역절차를 개혁하지  
않고는 업무처리 시간의 지연, 관  
리인력의 증가, 오류의 발생 등 부  
대경비의 급증,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와 소량다품종화에 의한 무역  
처리건수의 증가로 인하여 무역업  
체의 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무역업무  
자동화는 무역업체의 무역절차비  
용을 최소화하고 물류흐름의 신속  
화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강화  
로 무역업체의 향후 생존전략에 필  
수적인 수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금년에도 KTNET은 국내 EDI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무역업무자  
동화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올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무역업체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